



정우석  
한정식속

17 **이태복을 5월 43-45,4**  
...도 내 마음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마워라  
...만드는 것을 너희가 돌았으나  
...나는 너희에게 미워노니  
나의 원수를 사랑하여  
...의를 익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 인종 하늘에 계신  
...의 아버지의 이름이 되라

## 정우석 성도의 '존버'

사순절: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등 경건의 생활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

항상 들어왔지만 별 생각 없이 지나쳤었다. 그러나 이번에 배화교회에서 카드와 스티커를 주었기 때문에 반강제??로 하려고 했으나 일상에 치진 나는 역시나 적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적어야지 라고 생각은 했었다. **'하루에 한번 감사하기와 불평불만(이라쓰고 욕이라 읽음)하지 않기.'** 카드에 적지 못했던 이유는 해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과연?? 이 어려운걸 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한 날, 놀랍게도 나는 아침에 감사를 해보았다. 출근길 버스줄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취업난에 출근할 회사가 있고 더군다나 자동차로 출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도착하고 밤에 도착한 매일 257개를 보자마자 바로 화가 났다. 상사가 바이패스한 메일(일)이었다. 약 1시간 30분 후, 스타벅스 커피에 디션을 손에 들고 나타나 떠넘긴 일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는 상사의 입술을 바라보니 도저히 표정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거 원래 니일이잖아..' 라는 말이 목젖까지 올라왔지만 월요일에 작성한 '손으로 목상'이 생각났다.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다. '저 자식이 꼭 잘려서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차리게 해주세요'

순간 사순절에 이견 아닌거 같았다. 하지만 이미 화가나 있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이미 충분히 빠르게 살고 있는데 주님이 빠르게 사신 기간동안 더 빠르게 살아야 되는건가?'

억울했다. 원래 형제집안의 둘째차남은 항상 억울하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심보인가.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별의 별 생각이 드는데 문득 '주님은 다 참으셨다' 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렇다. 주님은 다 참으셨다. 나보다 힘들고 더 억울하며 더욱 더 화가 나는 상황에, 그리고 힘들게 하는 놈들을 순식간에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음에도 참으시고 견디셨다.

나는 기도했다. 저에게도 세상을 버티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요즘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게 된다. 어디가서 힘들다고 말해봐야 공감을 얻지 못하고 해결책도 없다. (다 나보다 더 힘들다. 주변에 왜 이렇게 다 힘든 사람밖에 없는건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건가.)

처음에는 나의 욕망을 위해 기도했다. 목사님이 무서운 표정으로 '샤머니즘'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나의 소유권을 모두 주님에게 넘겨야 한다. (내 소유, 빛을 넘기면 되는건가...)

결국 점점 기도가 힘들어지지만 그래도 저 말씀들을 되새기며 좀 더 고급스러운(?)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다.

아직도 여전히 삶은 힘들고, 오늘도 상사는 나가서 2시간동안 커피를 마시겠지만 늘 그랬듯이 나는 교회에 나가고 기도를 한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일이다.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교회를 나갈것이고 기도를 계속 할 것이다. 주님께 존버! 늘 그래왔듯이.

\* 존버 - '존중받을 때까지(?) 버티다'의 줄임말

# 배화교회

주보 제 2019-12호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2019.3.24

## 사순절 제 3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회 중: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진 간사)

내 평생에 가는 길 +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대표기도 서민욱 집사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봉헌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맘에 미움 없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2.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으소서
3.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 존버 - '존중받을 때까지(?) 버티다'의 줄임말

##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지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시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경봉독 \* 열왕기상 16장 29절 ~ 17장 1절

16:29 유다의 아사 왕 제삼십팔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34 그 시대에 벨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만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7:1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 설교 김영석 목사 아합의 질주를 막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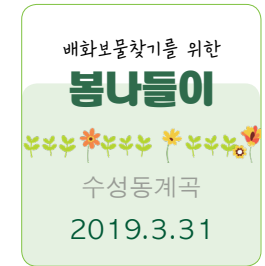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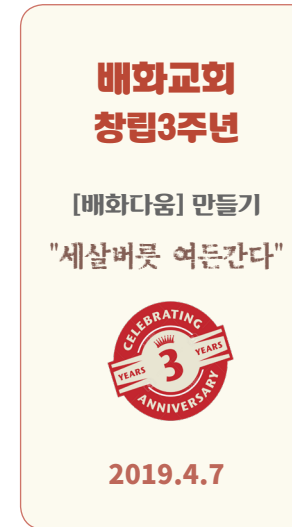
## 찬양과 기도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

## 축도\* 김영석 목사

### 지난주 통계

인원	87명
헌금	십 일 조   강영진 서민욱 이아름 이동근 이은미 한호철 조진영 무명 감사헌금   김은철 김재홍 김선민 서광희 송민혜 주일헌금   권태성 김영석 홍병진 김택운 김택현 문지혜 박세연 박재성 백수산나 서하량 송민천 김미소 송윤경 이병홍 정우석 태미선 조진철 박소영 최명성 최영광 최정용 추세영 무 명 목적헌금   성임숙(일천번제)

## 교회소식 Church Announcement



### 사순절

사순절 셋째 주가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깨달음과 감동이 있다면, 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속도원들과 목회팀에게 나누어주세요. 아이들의 도전 이야기도 좋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도전하는 사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 캠퍼스 사역

"사랑하는 배화에게"라는 주제로 캠퍼스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화여자학생들에게 편지와 선물을 주실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문의: 김재홍 집사 010-8981-0720)

### 착한 마켓

다음 주일(3월 31일), 점심시간에 열립니다.

### 봉나들이

다음 주일 점심식사 후, 수성동 계곡으로 나들이합니다.

### 창립3주년

4월 첫째 주일, 배화교회 창립3주년 감사예배 및 "세살 버릇 여든간다" 주제로 자축행사를 진행합니다.

### 배식 및 정리

오늘은 청년부, 다음 주는 하품 중등부입니다.

### • 대표기도

3.31	송민천 전도사
4.7	허경식 집사
4.14	송민혜 전도사
4.21	이은미 집사

\*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기도실

\* 홈페이지: www.baewhach.kr  
유튜브, 인스타그램: 배화교회